

광주·전남 조합장 200명 '풀뿌리 경제' 이끈다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 마무리 투표율 광주 82.6·전남 80.9% "깜깜이 선거... 법 개정 절실"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율이 열렸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선거에서 광주 82.6%, 전남 80.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당선된 조합장들은 앞으로 4년간 '풀뿌리 지역경제'의 근간인 각 조합을 이끌게 된다.

8일 광주·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광주는 총 선거인수 2만6908명 가운데 2만221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22개 투표소에서 무투표 당선자를 제외, 16명의 조합장을 선출했으며 조합별 투표율은 농협

조합장 87.7%, 산림조합장 45.5%를 보였다. 276개 투표소에서 130명이 선출된 전남에서는 총 선거인수 27만6782명 가운데 22만378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조합별로는 농협 투표율이 85.4%로 가장 높았고 수협 77.7%, 산림조합이 67.2%로 뒤를 이었다.

광주는 18개 조합장선거에 49명이 출마하여 평균 2.7대 1, 전남은 182개 조합에 381명이 등록해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당선된 조합장들은 향후 4년간 '풀뿌리 지역경제'의 근간인 각 조합을 이끌게 된다. 선출된 조합장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역대 연봉에 조합내 인사, 경영과 사업에 권한을 갖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막강한 권력을 거머쥐게 된다.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자금을 관리하는 권한은 물론, 임기

4년 동안 조합의 대표권, 업무 집행권, 직원 임면권 등도 행사할 수 있다. 농협의 경우 농산물 판매와 하나로마트 운영에도 관여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 조합장 전결로 금리와 대출 한도를 정할 수 있어 대출과 같은 신용사업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대한민국 4대 선거'로 불리는 조합장선거는 2015년 선관위에 위탁된 이후 3회째 전국동시선거로 치러졌지만 줄곧 '깜깜이, 과열, 혼탁' 등 각종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공직선거와 달리 위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고 후보 본인에 한해 13일간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선거제도도 지적받아 왔다. 하지만 국회는 조합 선거법 개정에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들 사이에서 자신을 알리기 어렵다는 호소가 빗발쳤으며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 사이에서 후보자와 공약을 알기 어려워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순천지역 농협 관계자는 "올해 선거 역시 지난 선거처럼 과열, 혼탁 등 불미스러운 상황이 빈번했다. 다음 선거 전까지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 깨끗한 제4회 조합장선거가 치러지길 기대한다"며 "당선된 조합장들이 앞으로 4년간 각 조합을 잘 이끌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경찰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 기간 동안 적발한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행위 79건, 관련인 107명을 수사 중이다. ▶관련기사 3면 김은지 기자



환호하는 김기현 대표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당 대표가 환호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뉴시스

한국 야구, 14년 만의 'WBC 4강' 가자

오늘 도쿄돔서 호주와 첫 경기 이강철 감독 선수단 조화 자신



'국제 야구 대항전'인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이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개막했다.

한국 야구 대표팀은 9일(한국 시간) 호주전을 시작으로 4강 진출을 향한 열전에 나선다.

2023 WBC는 8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본선 1라운드 A조 쿠바와 네덜란드의 경기로 개막했다.

한국은 일본, 호주, 중국, 체코와 B조에 속해 일본 도쿄돔에서 본선 1라운드를 치른다. 9일 오후 12시 호주전을 시작으로 10일 오후 7시 일본전, 12일 오후 12시 체코전, 13일 오후 7시 중국전이 이어진다.

이번 대회는 타이베이와 도쿄, 미국 피닉스-마이애미 등 4개 지역에서 본선 1라운

드와 2라운드(8강)를 진행한 후 결선 토너먼트(준결승·결승)를 마이애미 론디노 파크에서 진행된다.

이강철호는 이번 대회에서 1라운드를 넘어 14년 만의 4강 진출로 한국 야구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각오다.

한국은 2006년 초대 대회에서 4강, 2009년 2회 대회 준우승을 차지했으나 2013년과 2017년에는 연달아 1라운드에서 고배를 마셨다.

결전을 앞둔 이강철 감독은 비장한 각오로 출사표를 던졌다.

이 감독은 8일 일본 도쿄돔에서 진행된 공식 훈련을 마친 뒤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오랜만에 실전을 들어가 긴장은 있지만 준비를 잘해왔기 때문에 좋은 긴장이라고 생각한다"며 "탄탄한 수비와 타격, 빠른 발과 장타력을 가진 선수들이 고무 분포돼 조화가 잘 이뤄졌다. 투수의 신규 조화 역시 잘 이뤄져 있고 마이애미를



WBC 대한민국 야구대표팀 이정후 선수 등이 8일 일본 도쿄돔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꼭 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강철호에는 주장 김현수를 중심으로 김광현, 양현종, 박병호 등 전직 빅리거가 대거 선발됐고 현직 빅리거 김하성과 예비 빅리거 이정후에 국가 선택 규정으로

토미 에드먼까지 합류해 최고의 선수단이 꾸려졌다. 이에 더해 최근 연습경기에서 맹활약한 박세웅과 김원중, 정철원 역시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이 감독은 첫 경기인 호주전 승리를 다

짐했다. 한국은 국제대회에서 호주와 8승 3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2007년 대만 야구월드컵부터는 8연승 중이다.

▶관련기사 14면 2면에 계속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정치 개혁

2023

전남일보 SoulFood 인사이트 포럼

정치개혁과 국가 경쟁력

강연 - 호남 정치 개혁의 길
[박지원 / 전 국가정보원장]

국가 경쟁력

일시 2023년 3월 9일(목) 18:00
장소 라마다플라자충장호텔 13층
주최/주관 전남일보

“호 남의 정치 개혁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된다”